



“유정, 나에게도 큰 도전”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박해진, 2년 전 같은 캐릭터 연기

같은 배역을 TV 드라마에 이어 영화에서 맡는다는 것은 배우에게 ‘양날의 검’이다.

관객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드라마와 똑같으면 똑같다고, 다르면 다르다고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해진(35)에게도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속 유정 역할은 큰 도전이었다. 유명 웹툰이 원작인 데다, 불과 2년 전 같은 역할을 맡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2일 박해진은 “더 늦기 전에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영화를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마지막 유정이자, 속제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실제 만난 박해진은 유정과 닮은듯하면서도 달랐다. 극 중 유정은 외모, 성격, 집안 등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엄친아’다. 박해진 역시 외양만 보면 ‘만찐남’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 그 자체다.

하지만 말수가 별로 없는 유정과 달리 박해

진은 모든 질문에 빠른 말투로 청산유수의 대답을 쏟아냈고, 시종일관 여유가 넘었다.

박해진은 “저도 유정처럼 사람들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 속에 속한다”면서도 “실제 성격은 밝고, 남들에게 살가운 편이지만, 그런 성격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정은 복잡다단한 캐릭터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 일정한 거리를 둔다. 선의를 베풀면서도, 상황이 제 뜻대로 돌아가도록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뒤에서 사람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다 자신의 본모습을 알아채 후배 홍설(오연서)에게는 속내를 털어놓는다.

“유정이 사이코패스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남들과 다를 뿐, 더 순진하고 순수한 인물이지요. 오히려 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설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 드러내죠.”

박해진은 드라마에서는 김고은, 영화에서는 오연서와 각각 연기호흡을 맞췄다. 두 배우 모두 흥실 역이다. “둘 다 사랑스럽고 예쁘죠. 그러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어요. 드라마 속 홍설은 조금 더 솔직하고, 영화 속 홍설은 똑 부러진 면이 있죠.”

박해진은 여배우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 오연서도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박해진은 ‘질 토크’가 가능한 선배”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제가 사실 피부관리나 케어, 화장품 등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성격입니다. 요즘에는 가구나 스탠드,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해진은 올해 데뷔 12년 차다. 2006년 KBS2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연하남’ 역할로 데뷔한 뒤 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 ‘에덴의 동쪽’, ‘열혈장사관’ 등에 출연했다.

또 중국 드라마 ‘첸더더의 결혼이야기’ ‘또 다른 찬란한 인생’ ‘연애상대론’ 등에 출연하며 10여년새 한류스타로 우뚝 섰다. 다음 달에는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 한류스타로는 처음으로 영상채널 ‘박해진 V+’도 개설한다.

“한류스타라는 말은 아직도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신인 때와 달리 이제 조금 더 연기에 능숙해졌다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촬영하고 나면 시청자 게시판을 보는 것도, 방송 다음 날 기사를 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연기가 내게 맞는 옷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더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작품에 임하는 자세는 예전이 더 적극적으로 활발했던 것 같아요.”

한한령 이후 3년째 중국을 찾지 못했다는 박해진은 “요즘은 (한한령이) 풀릴 기미가 보이는 것 같다”면서 “내년 방영 목표로 중국 드라마 출연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해진은 최근에는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히트시킨 장태유 PD가 연출하는 사전 제작 드라마 ‘사자’를 촬영 중이다. 추리형 판타지 로맨스극으로, 박해진은 1인 4역에 도전한다.

“배우에게는 연기를 잘한다는 말이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든 배우 박해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오히려 보이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아이유, ‘음악의 미래를 증명하는 25곡’

뉴욕타임즈 선정, 아시아 가수 중 유일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5)의 노래 ‘팔레트’(Palette)가 미국 뉴욕타임즈 매거진이 선정한 ‘음악의 미래를 증명하는 25곡’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11일(현지시간) 발행된 뉴욕타임즈 매거진은 “음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25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가수와 이들의 대표곡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즈 매거진은 뉴욕타임즈의 일요판에 포함되는 잡지다. 25명의 가수를 각기 다른 저자가 다른 이면 특집에서 아이유 정규 4집 타이틀곡 ‘팔레트’는 9

번째로 소개됐다. 아이유 편은 프리랜서 기고가 린지 웨버가 집필했다.

뉴욕타임즈 매거진은 “아이유는 젊은 솔로 스타라는 점과 천진난만한 이미지를 거부하는 중이라는 점에서 과거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연상시킨다”며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전례를 따른다면 아이유는 ‘소녀는 아니지만 아직 여자도 아닌’ 단계에 있다. ‘팔레트’를 들었을 때 아이유가 성숙함을 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또 “K팝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마니아 요소가 있는 곡으로 서구에 소개됐지만, 아이유는 자기 성찰



이 담긴 노래로 K팝 장르의 진부함을 깨는 보기 드문 싱어송라이터”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뉴욕타임즈 매거진 특집에는 케이티 페리, 카디비, 브루노 마스, 테일러 스위프트 등의 작업물이 소개됐다.



엑소 얼굴 담긴 기념메달 나온다

한국조폐공사 “한류 확산 기여” 내달 출시

한국조폐공사가 한류 확산에 기여한 그룹 엑소의 공식 기념메달을 제작한다. 12일 엑소 기념메달의 글로벌 유통사 솔잎콘텐츠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최정상 아이돌 그룹으로 한류의 중심에 선 엑소의 기념메달을 제작해 4월 출시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주화 등 국가 행사의 기념주화와 메달을 제작해 온 조폐공사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류 확산에 기여한 K팝 스타의 메달을 제작하면서 엑소를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엑소의 기념메달 앞면에는 유명 화페 디자이너가 작업한 각 멤버의 얼굴이 담겨 있고, 뒷면에는 엑소의 로고와 함께 위·변조 방지 특허 기술이 적용된다. 함께 제공되는 보증서에는 제품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2012년 데뷔한 엑소는 ‘오르렁’, ‘코코팝’, ‘파워’ 등의 히트곡을 냈으며 지난 달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K팝 가수를 대표해 무대를 꾸몄다.

태양·대성 하루 차이 입대

빅뱅 완전체 ‘꽃길’ 공개

빅뱅의 태양(본명 동영배·30)이 12일 입대했다. 태양은 이날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청성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지난달 3일 배우 민효린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그는 이날 부인과 팬들의 배웅 속에 입소했다. 13일에는 대성이 강원도 화천 육군 27사단 이기자 신병교육대로 입소한다.

같은 날, 빅뱅의 다섯 멤버가 참여한 완전체 신곡 ‘꽃길’이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다.

지드래곤이 작사·작곡하고 탑이 작사에 참여한 ‘꽃길’에는 입대 팬들과 잠시 이별하게 된 빅뱅의 마음이 담겼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TV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재)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50 역류	30 KBC 모닝 730	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45 출동! 슈퍼윙스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00 당동맹 유치원 30 플라워링 하트 45 방귀대장 뽕뽕이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2018 평창 패럴림픽	30 930 MBC 뉴스 4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10 좋은 아침	00 몬카트 15 화산섬의 비밀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평창 2018 패럴림픽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20 세계테마기행(재)
11	00 다큐 공감(재) 55 한식의 마음			00 SBS 12뉴스 55 특목 보험설계	00 EBS 정오 뉴스 10 행복한 교육세상(재)
12	00 KBS 뉴스12 30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00 1%의 우정(재)		55 닥터 365	00 다큐 오늘 40 성난 물고기(재)
1	20 천상의 컬렉션(재)	25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	20 팔도밥상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5 꾸러기 식사교실 35 프리파라 3		0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 파파리카 45 부릉! 부릉! 브루미즈
3	00 2018 평창 패럴림픽 라이브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헬로키키 45 위대한 유혹자(재)		00 EBS 정오 뉴스 30 마사와 곰 45 띠띠뽀 띠띠뽀
4		00 1대 100(재) 55 제보자들(재)	55 뉴스콘서트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0 당동맹 유치원(재) 30 마사와 곰 45 띠띠뽀 띠띠뽀
6	00 6시 내고향 55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착한 마녀전(재)	00 특!특! 보니 하니 25 로보 발명왕 러스 45 우리 몸 X파일
7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원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짜와 생활 05 TV블로그 토크라	00 몬카트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재)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40 세계테마기행
9	00 KBS 뉴스 9 40 가야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10	35 숨터 4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45 우리만 이런가
11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하루뿐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55 글로벌 야빠 찾아 삼만리
12	00 독립영화관 <화이트 갓>	35 2018 평창 패럴림픽기회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하이라이트	30 나이트 라인	45 지식채널e 50 한국영화특선 <권순분 여자남치사관>

오늘의 운세

3월 13일(1월 26일)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p>48년생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60년생 주변에 안정과 행복이 넘쳐난다. 72년생 마음을 열고 주변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라. 84년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이다.</p>	<p>42년생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다. 54년생 현실적인 처세가 필요하다. 66년생 세상이 되는 일이 없다. 78년생 경솔히 타인의 일에 간섭하면 함판 짚을 당한다.</p>
<p>49년생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넘쳐난다. 61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73년생 가족과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라. 85년생 희생 없는 성공은 없는 법이다.</p>	<p>43년생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가른다. 55년생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누구나 똑같다. 67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있다. 79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행복이 찾아온다.</p>
<p>50년생 할 말은 하고 살아라. 62년생 신용을 얻고 희망을 가진다. 74년생 드디어 고민거리가 해결된다. 86년생 부드러운 미소와 말 한마디가 성공의 토대가 된다.</p>	<p>44년생 넓은 아량을 보여줘라. 56년생 시련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라. 68년생 행운과 불행이 동시에 찾아온다. 80년생 역시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가 필요하다.</p>
<p>51년생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현실에 충실히 임하라. 63년생 직장에서 다들 일이 있다. 75년생 잠시 일을 멈추고 뒤를 되돌아보라. 87년생 대의명분이 중요하다.</p>	<p>45년생 음지가 양지된다. 57년생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다. 69년생 좋은 사람과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81년생 경쟁자가 있어 마음은 불편하지만 결과는 좋겠다.</p>
<p>5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라. 64년생 분노를 참고 아량을 보여 줘라. 76년생 마음을 굳게 먹고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라. 88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p>	<p>46년생 나이를 원망하지는 말라. 58년생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70년생 귀찮은 자가 찾아오니 성가시다. 82년생 미뤄둔 일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p>
<p>41년생 표정관리를 잘 해야 할 일이 있다. 53년생 불운이 찾아 와도 웃으면서 맞이하라. 65년생 먼저 양보하면 보답이 있다. 77년생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이다.</p>	<p>47년생 정말 운세 좋은 날이다. 59년생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다. 71년생 합리적인 결정으로 이익을 얻는다. 83년생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면 하루가 편안하다.</p>